

중소상공인의 금융현황과 보증

빈기범*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강형구**

한양대학교 경영대학 교수

이홍균***

신용보증기금 차장

국 문 요 약

본 연구는 2014년부터 2019년 9월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자료를 이용하여 5,521 샘플의 중소기업의 금융실태를 최초로 광범위하게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의 비중은 남성 장년층이 압도적인데 여성의 경우 청년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기업 대부분에서 창업자와 대표자가 동일인이다. 상시 및 비상시 직원수는 5명이하가 83%에 달한다. 역시 80% 이상의 중소기업이 2억 미만의 금액에 대하여 대출보증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신보의 재무등급점수는 100점 만점 중 10점 이하의 기업이 47%에 달한다. 2018년 연 매출액 평균은 17억원 정도다. 같은 기간 중 부채비율의 평균은 361%다. 본 연구는 향후 중소기업에 대한 연구와 정책개발에 중요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핵심주제어: 중소기업, 금융니즈, 신용보증기금, 청년, 여성

1. 서론

통계청의 소상공인 현황에 의하면 2017년 전체 사업체수는 3,737천개 인데 이중 85.3%인 3,188천개가 소상공인이다. 종사자수 기준으로 전체 17,294천명 중 36.8%인 6,365천 명이 소상공인에 종사한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그 비중이 큰 편인데 기획재정부의 2019년 9월 말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소상공인 비중은 25.1%이고 그리스(33.5%), 터키(32.0%), 멕시코(31.6%), 칠레(27.1%) 다음이다. OECD 국가 평균인 15.3%에 비교해도 10%p 정도 높은 수준이다.

높은 자영업 비중의 생태계가 형성된 배경에는 실업을 했거나 취직이 불가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시각과 개인들의 직업가치관이 변화하게 되면서 창업에 뛰어들게 된 결과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고용시장에서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 시

각이 우세하다. 미국과 같은 나라와 달리 자영업을 선택한 이유에 직업가치가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고 (최문경·이명진, 2005),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자영업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김우영·박동규, 2012; 이태정, 2014). 특히, 고용주와 비교하여 순수 자영업자의 경우(김우영·박동규, 2012), 그리고 진취적 자영업자와 비교하여 한계 자영업자의 경우(주동현·손종철, 2014)로 자영업자 내 이질성을 고려한 분석에서도 경제발전단계와 금융차입제약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한 자영업 비중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통계청의 소상공인 현황에 의하면 2017년 전체 사업체수는 3,737천개 인데 이중 85.3%인 3,188천개가 소상공인이다. 종사자수 기준으로 전체 17,294천명 중 36.8%인 6,365천 명이 소상공인에 종사한다. 이처럼 중소기업은 대한민국의 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그 비중이 큰 편인데 기획재정부의 2019년 9월 말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 소상공인 비중은 25.1%이고 그리스(33.5%), 터키(32.0%), 멕시코(31.6%), 칠레(27.1%) 다음이다. OECD 국가 평균인 15.3%에 비교해도 10%p 정도 높은

* bink1@mju.ac.kr

** hyoungkang@hanyang.ac.kr

*** lovehk81@gmail.com

수준이다.

높은 자영업 비중의 생태계가 형성된 배경에는 실업을 했거나 취직이 불가하여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시각과 개인들의 직업가치관이 변화하게 되면서 창업에 뛰어들게 된 결과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기변동에 따라 고용시장에서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미국과 같은 나라와 달리 자영업을 선택한 이유에 직업가치가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지 않았고 (최문경·이명진, 2005), 실업률이 높아질수록 자영업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김우영·박동규, 2012; 이태정, 2014). 특히, 고용주와 비교하여 순수 자영업자의 경우(김우영·박동규, 2012), 그리고 진취적 자영업자와 비교하여 한계 자영업자의 경우(주동현·손종철, 2014)로 자영업자 내 이질성을 고려한 분석에서도 경제발전단계와 금융차입제약과 같은 외부요인에 의한 자영업 비중 상승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기에도 매우 민감하다. 예를 들어 정부는 2020년 6월 1일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를 겪는 소상공인에 긴급지원 10조를 지원하기로 발표했다. 역시 코로나 극복을 위한 재난지원금도 소상공인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유도하고 있다. 야당인 미래통합당 역시 21대 국회 제1호 당론 법안으로 코로나 민생 지원 패키지를 발의했다.

이와 같은 특수 상황에서 긴급한 지원정책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의 양적, 질적 확대가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는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상대소득이 60% 수준으로 낮으며 부채규모가 크나 채무불이행의 위험이 높고, 자영업 내에서도 매출과 소득 격차가 극심하기 때문이다(금재호·이인실, 2011; 윤상용·김지수, 2014; 김수환·김형규, 2017; 윤병우·권태구, 2020). 자영업주의 성별(여성), 높은 연령과 낮은 학력, 짧은 업력과 적은 종업원 수, 특정 업종, 작은 기업 규모와 같은 영세자영업자의 특징이 소득하락과 낮은 생존율을 예측하기도 하지만(금재호·이인실, 2011; 이근우 외, 2015), 자영업자의 기업가정신이 재무적 성과에 유의한 양적 영향을 미치며(소은영·박성환, 2015), 점포 환경과 상권 성장성·다양성과 같은 요소도 기업 운영만족도, 기업의 부실화 정도, 나아가 폐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이주희·동학림, 2018; 박정식·김재태, 2019; 윤상용, 2019),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정책에는 자금과 신용평가와 같은 재무적 측면 이외에도 경영 컨설팅, 창업과 운영 관련 상담이나 교육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조준희·김찬중, 2010).

한편, 소득이 안정적인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자의 평균 임금이 낮은 데에는 이들의 소득축소보고 경향이 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특히 고소득층의 경우 소득보고율

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성명재, 2011). 하지만 자영업이라는 직업군의 특성에 의해 사업비용으로 처리하는 항목 기준이 불분명한데서 온 결과라는 점도 실증적 원인의 한가지로 제기된 바 있다(김봉근 외, 2008). 이처럼 소상공인들의 신용평가요소로서 불충분한 객관적, 정량적 자료는 효과적 정책 발굴의 저해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반적 재무·비재무변수와 같은 전통적인 신용평가요소 뿐만 아니라 자기기업식 설문조사 응답 결과만으로도 신용평가모형을 구축의 가능성을 검증하고(박주완, 2018), 핀테크를 활용하여 소상공인의 신용위험 사고율 예측에 상권등급을 포함하거나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거래내역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소상공인의 기업 특성과 다양한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신용평가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이 시도되고 있다(윤상용·강만수, 2017; 빈기범 외, 2020; 노태협, 2011; 오광용·박대우, 2019). 거래편의성, 속도, 비용, 보안성, 호환성 측면에서 호평을 받으며 전세계 핀테크 관련시장은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국의 핀테크 서비스 이용률은 세계 20개국 중 11위에 그쳤으며(김수지, 2019), 특히 핀테크의 성장가능성에 비해 이에 대한 소상공인의 인식 수준은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나 시스템 구축과 더불어 이용자 대상의 홍보도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정무섭·표민찬, 2018).

소상공인은 주로 부족한 담보력과 낮은 신용등급, 명확한 재무재표 관리의 어려움과 낮은 마진, 경기변동에 따른 수익의 불안전성 등으로 인해 자금조달이 쉽지 않은 환경에 처해 있다(윤상용·김지수, 2014; 김상환·김홍기, 2016). 공적 신용보증은 이러한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대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대출금리가 부담될 수밖에 없는데, 신용보증제도 이용자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분보증에 비해 전액보증을 받았을 경우(김상환·김홍기, 2016), 그리고 신용보증 지원을 받기 전에 비해 지원받은 이후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재성·오종석, 2018). 이는 신용보증으로 인해 신용위험이 커버될수록 실질적 효과가 발생함을 의미한다. 다만, 신용보증재단의 효율성은 1999년에 비해 2000년대 초반 들어 하락했던 것으로 확인된다(신동진·박추환, 2007). 향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축적된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는 비용기반 가치평가지 597.3억원, 수익기반 가치평가지 318.9억원, 시장기반 가치평가지 264억원에서 354억원까지의 추정 범위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김동성 외, 2017). 소상공인 신용보증 데이터를 활용하면 새로운 정책과 공공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소상공인 대상의 금융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려면 이들의 금융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김수환·김형규, 2017).

이렇듯 중소기업인을 타겟으로 한 각종 정책이 등장하고 있는데 과학적인 정책을 위해서는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다. 특히 기업수로 소상공인의 비중이 압도적이다. 소상공인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이나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소공인을 주로 말한다. 때로는 예비창업자를 포함하기도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도시형소공인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거나 노동집약도가 높고 숙련기술을 기반으로 하며 일정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한다. 본 논문은 국내 문헌 최초로 신용보증기금의 소상공인 데이터를 분석한다.

II. 연구 결과

본 논문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1> 대표자의 성별 별 만 나이

만 나이	대표자성별				Total	
	남		여			
	빈도(건)	상대빈도(%)	빈도(건)	상대빈도(%)	빈도(건)	상대빈도(%)
만 20세 미만	1	0.02	0	0.00	1	0.02
만 20-30세	79	1.73	42	4.44	121	2.19
만 31-40세	1,349	29.49	335	35.41	1,684	30.50
만 41-50세	1,888	41.27	351	37.10	2,239	40.55
만 51-60세	1,013	22.14	178	18.82	1,191	21.57
만 61-70세	220	4.81	40	4.23	260	4.71
만 71-80세	23	0.50	0	0.00	23	0.42
만 81세 이상	1	0.02	0	0.00	1	0.02
N/A	1	0.02	0	0.00	1	0.02
Total	4,575	100.00	946	100.00	5,521	10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1>은 대표자의 성별 별로 만 나이를 나타낸 자료이다. 만 나이는 마지막으로 보증을 받은 최종신규증액연도를 기준으로, 회사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12월 31일로 가정하여 산출하였다. 남녀 모두 41-50세인 경우가 성별 별로 41.27%, 37.10%를 차지하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31-40세로, 남성 대표자 중 31-40세인 비율이 29.49%, 여성 대표자중에서는 31-40세인 비율이 35.41%인 것으로 나타났다. 51-60세인 대표자는 성별 별로 3번째로 많았으며, 남성에서는 22.14%, 여성에서는 18.82%를 차지했다. 생년월일이 결측 되어있는 관측치가 1개 존재하였다.

30세 이하의 청년창업은 남성은 1.75% 여성은 4.44%에 불과하다. 여성의 청년창업이 비중이 남성보다 훨씬 높다. 여성 청년들의 창업에 대한 관심일 수도 있고 남성 청년들의 군복무의 영향일 가능성도 있다. 만약 전자가 맞다면

여성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여성청년 창업은 다른 연령에 비하여 비중이 높으나 절대적인 숫자가 남성청년에 비하여 작기 때문이다. 만약 군대문제 때문에 남성청년 창업 비중이 낮은 것이라면 군대에서 리더십, 조직 능력을 비롯한 창업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이스라엘 등의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 즉 이스라엘처럼 군이 창업 인큐베이터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170216/82888913/1>).

<표 2> 표본 회사의 사업장지역

사업장지역	빈도(건)	상대빈도(%)
강원	82	1.5
경기	1,799	32.6
경남	276	5.0
경북	227	4.1
광주	119	2.2
대구	282	5.1
대전	103	1.9
부산	296	5.4
서울	1,459	26.4
세종	28	0.5
울산	29	0.5
인천	362	6.6
전남	80	1.5
전북	125	2.3
제주	36	0.6
충남	124	2.3
충북	94	1.7
Total	5,521	1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2>는 관측된 회사의 사업장 지역을 광역자치단체 기준으로 나누어 나타낸 자료이다. 경기도에 사업장 지역이 있는 경우가 32.6%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가 그 다음으로 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이 70%에 달한다.

<표 3> 표본 회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소분류) 기준 상위 10개 관측 업종

업종분류	빈도(건)	상대빈도(%)
의원	791	14.3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366	6.6
무점포 소매업	289	5.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237	4.3
생활용품 도매업	214	3.9
기타 전문 도매업	174	3.2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174	3.2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159	2.9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156	2.8
음식점업	148	2.7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3>은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소분류 기준으로 관측된 회사의 업종을 상위 10개로 나누어 나타낸 자료이다. 의원이 가장 많은 14.3%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이 6.6%, 무점포 소매업이 5.2%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영업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음식점업은 2.7%다.

1) 소기업 기준은 부록 <표 16>을 참고바람.

<표 4> 표본 회사의 개인 및 법인 구분 별 기업 규모

개인법인 구분	기업규모				Total	
	소기업	소기업	중기업	중기업	빈도 (건)	상대 빈도 (%)
	빈도 (건)	상대 빈도 (%)	빈도 (건)	상대 빈도 (%)		
개인사업자	3,999	73.0	22	52.4	4,021	72.8
법인사업자	1,480	27.0	20	47.6	1,500	27.2
Total	5,479	100.0	42	100.0	5,521	1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4>는 표본 회사를 개인/법인 구분 및 회사의 기업 규모 별로 나타낸 자료이다. 기업규모는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분류되어 있다. 기업규모는 중소기업을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나눈 것으로, 중기업은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이다. 소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 평균매출액 규모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1)

표본 중 개인사업자는 72.8%로 가장 많았으며, 법인사업자는 27.2%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본 중 소기업은 5,479개로, 전체 표본이 5,521개 인 것을 생각했을 때 거의 대부분의 표본이 소기업인 것을 알 수 있다. 소기업 중 개인사업자는 73.0%, 법인사업자는 27.0%였으며 중기업 중 개인사업자 비율은 52.4%, 중기업 중 법인사업자 비율은 20%로 나타났다. 중기업의 경우 표본의 수가 많지 않지만, 소기업과는 다르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간 비율이 비교적 고른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5> 표본 회사의 상시 직원수 및 비상시 직원수 현황

구분	상시 직원수		상시 및 비상시 직원수	
	빈도 (건)	상대빈도 (%)	빈도 (건)	상대빈도 (%)
5명 이하	4,663	84.5	4,563	82.7
6-10명	609	11.0	663	12.0
11-20명	169	3.1	200	3.6
21명 이상	80	1.5	95	1.7
계	5,521	100.0	5,521	1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5>는 관측된 회사의 상시 직원수 현황과 상시 및 비상시 직원수 현황을 나타낸 자료이다. 대부분의 회사의 상시직원수가 5명 이하인 84.5%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11.0%인 6-10명으로 나타났다. 비상시 직원수를 포함해서 계산하였을 때는, 상시 및 비상시직원수가 5명 이하인 82.7%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6-10명이 12%다.

<표 6> 대표자의 기업 경영형태

구분	빈도(건)	상대빈도(%)
등업	55	1.0
승계	33	0.6
인수	113	2.0
창업자	4,987	90.3
기타	5	0.1
N/A	328	5.9
Total	5,521	1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6>은 회사 대표자의 경영 형태를 나타낸 자료이다. 대부분의 대표자가 90.3%로 회사를 창업자이기도 하다. 동업/승계/인수/기타 와 같은 항목은 2.0%이하로 나타났다. 전체 관측치 중 결측은 5.9%로 나타났다.

<표 7> 표본 회사의 보증상품 누적 이용 갯수

보증상품 이용갯수	빈도(건)	상대빈도(%)
1	721	13.1
2	721	13.1
3	1,188	21.5
4	1,090	19.7
5	983	17.8
6	512	9.3
7	184	3.3
8	72	1.3
9	39	0.7
10	11	0.2
Total	5,521	1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7>은 관측된 회사에서 이용한 기업특성 보증상품과 자금특성 보증상품에 대한 총 누적 이용 갯수를 나타낸다. 전체 회사 중 21.5%에서 보증상품 3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4개를 이용한 회사가 19.7%, 5개가 17.8%로 나타났다. 1건과 2건을 이용한 경우는 각각 13.1%로 나타났다.

<표 8> 표본 회사의 순보증 이용연수

순보증 이용연수	빈도(건)	상대빈도(%)
1년 미만	3,843	69.6
1년 이상-5년 미만	502	9.1
5년 이상-10년 미만	325	5.9
10년 이상-20년 미만	782	14.2
20년 이상	69	1.3
Total	5,521	1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8>은 관측된 회사의 순보증 이용연수를 나타낸다. 순보증 이용연수란 최초 보증취급일자로부터 2019.09월까지

회사의 보증 이용연수를 의미한다. 순보증 이용연수가 1년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이 69.6%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10-19년으로 14.2%에 해당하는 기업이 이에 해당했다. 1년 이상-5년 미만을 이용한 기업은 9.1%에 해당했다.

<표 9> 표본 회사의 총 보증 잔액

총 보증 잔액	빈도(건)	상대빈도(%)
0원-1억 원 미만	2,280	41.30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2,248	40.72
2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650	11.77
3억 원 이상-4억 원 미만	133	2.41
4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89	1.61
5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37	0.67
6억 원 이상-7억 원 미만	33	0.60
7억 원 이상-8억 원 미만	16	0.29
8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7	0.13
9억 원 이상-10억 원 미만	12	0.22
10억 원 이상-11억 원 미만	4	0.07
12억 원 이상-13억 원 미만	2	0.04
13억 원 이상-14억 원 미만	2	0.04
14억 원 이상-15억 원 미만	5	0.09
19억 원 이상-20억 원 미만	2	0.04
20억 원 이상-21억 원 미만	1	0.02
Total	5,521	10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9>는 관측된 회사의 2019.09월 말 기준 보증잔액의 총계를 나타낸다. 0원-1억 원 미만을 보증잔액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가 약 41.30%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0원-1억 원 미만이 약 41.30%에 해당했으며, 2억 원 이상-3억 원 미만이 11.77%에 해당했다.

<표 10> 표본 회사의 보증 목적

구분	빈도(건)	상대빈도(%)
시설자금	30	0.5
운전자금 + 시설자금	14	0.3
운전자금	5,477	99.2
Total	5,521	1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10>은 관측된 회사에서 보증을 사용하는 목적을 나눈 것이다. 운전자금은 자금쓰임의 범위를 특정하지 아니하여 통상적인 사업영위를 위해 이용하는 것으로, 시설자금은 시설도입 등 범위를 특정하여 구분한 것이다. 이 경우 대부분의 회사가 운전자금을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나, 99.2%로 나타났다.

<표 11> 표본 회사의 재무등급점수

점수	재무등급점수		계량비 재무등급점수		순수비 재무등급점수	
	빈도 (건)	상대 빈도 (%)	빈도 (건)	상대 빈도 (%)	빈도 (건)	상대 빈도 (%)
0점 이상-10점 미만	2,600	47.1	277	5.0	707	12.8
10점 이상-20점 미만	76	1.4	9	0.2	0	0
20점 이상-30점 미만	134	2.4	78	1.4	0	0
30점 이상-40점 미만	170	3.1	359	6.5	3	0.1
40점 이상-50점 미만	229	4.2	833	15.1	46	0.8
50점 이상-60점 미만	264	4.8	790	14.3	440	8.0
60점 이상-70점 미만	329	6.0	928	16.8	1,365	24.7
70점 이상-80점 미만	288	5.2	736	13.3	1,298	23.5
80점 이상-90점 미만	166	3.0	292	5.3	438	7.9
90점 이상-100점 미만	88	1.6	42	0.8	47	0.9
N/A	1,177	21.3	1,177	21.3	1,177	21.3
Total	5,521	100.0	5,521	100.0	5,521	1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11>은 관측된 회사의 재무등급점수를 나타낸다. 재무등급점수로는 재무등급점수, 계량비재무점수, 순수비재무점

수 각 세 가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각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한다. 재무등급점수는 보증신청업체의 재무제표로 산출한다.

계량비재무점수는 사업장, 거주주택 소유여부, 대표자 동업계 종사경력, 금융기관 이용연수 등의 비재무적인 요소를 계량화하여 점수로 구현한다. 순수비재무점수는 신용보증기금 직원이 업체에 현장조사를 나간 후 평가자가 임의로 부여할 수 있는 점수이다. 재무등급점수, 계량비재무점수, 순수비재무점수를 가중 평균하여 종합신용등급을 산출한다. 이중 재무등급점수의 가중치가 가장 높다.

재무등급점수는 약 78.7%에 해당하는 회사에 부여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21.3%의 회사는 재무등급점수가 결측되어 있다. 재무등급이 없는 업체는 최근 3개년 재무제표의 수집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된다. 특히 보증신청연도 내지 보증신청연도 직전연도에 창업을 하거나 간편장부 대상업체로 분류되는 경우 재무제표 작성의무가 없어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은 등의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재무등급점수는 0점 이상-10점 미만에 해당하는 기업이 47.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량비재무등급점수는 40점 이상-50점 미만 구간부터 70점 이상-80점 미만 구간까지 각각 약 13-17% 사이로 나타났으며, 순수비재무등급점수는 60점 이상-70점 미만과 70점 이상-80점 미만 구간이 약 25%, 24%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표 12> 표본 회사의 연도별 재무정보 요약

연도	자산총계, 자본총계, 부채총계 (단위 :개, 백만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단위 :개, 백만원)			
	관측치 수	자산총계 (평균)	부채총계 (평균)	자본총계 (평균)	관측치 수	매출액 (평균)	영업이익 (평균)	당기순이익 (평균)
2014	287	985.6	659.0	326.6	285	1754.2	85.3	66.4
2015	1,009	645.5	399.6	245.9	1,008	1129.1	84.8	75.4
2016	2,025	572.2	349.1	223.0	2,021	1005.0	78.2	70.1
2017	2,813	558.0	338.8	219.1	2,802	1062.3	80.7	73.0
2018	1,408	830.4	515.9	314.5	1,401	1708.7	93.9	84.6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12>는 관측된 회사의 연도별 재무정보를 요약한 표이다.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의 관측치 수는 연도별로 287개-2813개 사이로, 연도별로 관측치 수는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2014년에는 287개로 가장 적고, 2017년에 2,813개로 다른 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관측치 수를 보인다.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의 평균의 경우 모두 2014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에 자산총계의 경우 약 10억, 부채총계의 경우 약 6억, 자본총계의 경우 약

3억으로 그 해의 평균 수준이 나타났다.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경우에도 관측치 수는 연도별로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2014년에는 285개로 가장 적고, 2017년에는 2,802개를 넘어 다른 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관측치 수를 보인다. 매출액 평균이 가장 높았던 2014년에는 평균 약 17억 원을 보였으며,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평균이 가장 높았던 2018년에는 각각 약 9천만원, 약 8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소분류) 기준 상위 10개 관측 업종 및 기타 업종 회사의 연도별 재무정보 요약

구분	자산총계, 자본총계, 부채총계 (단위 :개, 백만원)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단위 :개, 백만원)			
	관측치수	자산총계(평균)	부채총계(평균)	자본총계(평균)	관측치수	매출액(평균)	영업이익(평균)	당기순이익(평균)
의원	861	514.9	328.4	186.5	860	678.3	184.2	169.2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	393	722.8	431.0	291.8	392	1550.2	69.1	60.4
무점포 소매업	374	485.4	246.3	239.2	372	1414.7	42.9	43.3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327	520.5	301.9	218.6	327	952.2	68.2	66.0
생활용품 도매업	300	452.2	297.0	155.2	300	1359.0	66.8	60.3
기타 전문 도매업	284	680.5	427.9	252.6	283	964.9	96.1	91.3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267	925.2	613.5	311.8	267	2456.3	68.5	53.4
기타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238	700.0	468.5	231.6	238	955.4	86.2	72.8
음식점업	164	217.8	100.6	117.2	164	513.0	35.2	36.2
음·식료품 및 담배 도매업	160	494.4	281.7	212.8	158	2086.2	54.6	49.5
기타 업종	4174	693.6	428.5	265.2	4156	1211.1	72.5	63.4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13>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소분류) 기준 관측된 상위 10개 업종과 그 외 관측된 업종의 회사 재무정보를 요약한 표이다. 상위 10개 업종 중에서는 의원의 경우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관측치가 861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경우 860개로 재무 정보가 가장 많이 관찰되었다. 자산총계는 평균 약 5억, 부채총계는 평균 약 3억, 자본총계는 약 2억으로 나타났으며, 매출액의 경우 평균 약 7억인데 반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경우 평균 약 2억으로 나타났다.

자산총계가 가장 많았던 업종은 기계장비 및 관련 물품 도매업으로, 자산총계가 평균 약 7억으로 나타났다. 관측치수는 의원 다음으로 많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관측치가 393개,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의 경우 392개로 나타났다. 또한 매출액의 경우 평균 약 15억인데 반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의 경우 각각 평균 약 7천만원, 6천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출액이 가장 많았던 업종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으로, 매출액이 약 24억으로 나타났다. 반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평균 약 7천만원, 5천만원으로 나타났다.

<표 14> 표본 기업의 연도별 재무지표 요약

연도	자기 자본 비율 관측치 수	자기 자본 비율 평균 (%)	부채 비율 관측치 수	부채 비율 평균 (%)	유동 비율 관측치 수	유동 비율 평균 (%)
2014	285	35.2	285	385.3	282	2.0
2015	995	38.3	994	489.9	994	4.6
2016	2005	46.7	2002	426.6	1971	4.9
2017	2794	42.4	2789	435.6	2732	4.9
2018	1406	39.7	1405	361.2	1370	2.6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14>는 관측된 회사의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의 연도별 평균수준을 나타냈다. 관측치 수는 연도별로 약 280대-2800대 사이로, 연도별 관측치 수는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모두 2014년에는 약 280여개로 관측치 수가 가장 적으며, 2017년에는 약 2800여개로 가장 많다. 자기자본비율은 자본총계/자산총계*100으로 계산되었으며, 부채비율은 부채총계/자본총계*100, 유동비율은 (유동자산/유동부채)/자산총계*100으로 계산되었다.

자기자본 비율 평균은 연도별로 35%에서 46% 사이이다. 2016년도까지 높아지다가 그 이후로 낮아지고 있다. 평균

부채비율의 경우 2015년이 가장 높은 489.9%이며 2018년 이 가장 낮은 461.2%다. 부채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유동비율은 2014년이 가장 낮은 2%이고 2016년과 2017년이 가장 높은 4.9%다.

<표 15> 회귀분석 결과

	(1)	(2)	(3)	(4)
	ln(총보증잔액)	ln(순보증일수)	ln(재무등급 점수)	ln(계량비 재무등급점수)
ln(경영자종사년수)	-0.0304**	0.0763**	0.0017	-0.0098
	(0.01)	(0.04)	(0.03)	(0.01)
ln(직원수)	0.3006***	0.1943***	0.0655***	-0.0026
	(0.01)	(0.04)	(0.02)	(0.01)
업력	-0.0035	0.0755***	0.0105***	0.0010
	(0.00)	(0.01)	(0.00)	(0.00)
경영자 성별 더미 (여자=1)	-0.0385	-0.1016	-0.0171	-0.0059
	(0.03)	(0.07)	(0.05)	(0.02)
법인더미(법인=1)	0.4406***	0.1480**	0.0696*	0.0288*
	(0.03)	(0.07)	(0.04)	(0.02)
규모더미(중기업=1)	0.1012	0.1030	0.0518	0.0052
	(0.10)	(0.25)	(0.12)	(0.05)
업종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지역	통제	통제	통제	통제
경영형태	통제	통제	통제	통제
시설운전자금융부	통제	통제	통제	통제
N	3,524	3,519	1,568	2,806
R2	0.510	0.415	0.330	0.221
Adj-R2	0.409	0.293	0.0570	0.0261
F	5.039	3.419	1.209	1.134
[p-값]	[0.0000]	[0.0000]	[0.0090]	[0.0324]

회귀분석 결과, <표 15>와 같이 나타났다. 종속변수로 총보증잔액, 순보증일수, 재무등급점수, 계량비재무등급점수 각각에 로그값을 취했다. 설명변수로는 경영자종사년수의 로그값, 직원수의 로그값, 업력, 경영자 성별 더미, 법인더미, 규모더미를 넣었으며, 업종, 지역, 경영형태, 시설운전자금융부를 통제하였다. 총보증잔액을 종속변수로 한 경우 경영자종사년수가 1% 증가할 때마다 0.0304% 감소, 직원수가 1% 증가 시에 0.300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인사업자인 경우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비해 44.06%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업력, 경영자의 성별, 회사 규모는 총보증잔액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순보증일수를 종속변수로 한 경우 경영자종사년수 1% 증가 시 0.076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원수의 경우 1% 증가할 때 0.194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력의

경우 1년 증가 시 7.5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사업자인 경우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비해 순보증일수가 14.8%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경영자 성별, 회사 규모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등급점수가 종속변수인 경우, 직원수가 1% 증가하는 경우 재무등급점수가 0.0655%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업력 1년 증가 시에 1.0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해 6.96%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영자종사년수, 경영자 성별, 회사 규모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량비재무등급점수를 종속변수로 한 경우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 비해 2.88%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인 더미 외 대부분의 변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금재호·이인실(2011). 자영업 매출과 소득의 결정요인 분석. *한국경제연구*, 29(4), 103-140.

김동성·김중우·이홍주·강만수(2017). 공공부문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평가 연구: 소상공인 신용보증 데이터 사례. *지식경영연구*, 18(1), 67-81.

김봉근·정철·박명호(2008). 패널자료를 이용한 자영업자의 소득 축소보고율 분석: 영겔곡선이동과 실질소득 추정. *경제학연구*, 56(3), 151-170.

김상환·김흥기(2016).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지원제도: 현황과 효과. *한국경제의 분석*, 22(3), 47-99.

김수지(2019).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의 지속적 이용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김수환·김형규(2017).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에 관한 연구. *전문경영인연구*, 20(1), 69-87.

김우영·박동규(2012). 자영업 비중에 대한 시계열 분석: 실업률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34(3), 21-41.

노태협(2011). 소상공인 신용평가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 사례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11(4), 123-145.

박정성·오종석(2018). 설문조사를 활용한 신용보증의 처리효과 분석. *산업경제연구*, 31(3), 1079-1112.

박정식·김재태(2019). 점포 운영환경과 사업지속성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17(3), 19-37.

박주완(2018). 소상공인 신용평가모형 구축에 관한 연구: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중소기업금융연구*, 38(2), 39-65.

빈기범·이수진·장호규(2020). 소상공인 거래 블록체인 구축에 관한 제언. *금융정보연구*, 9(1), 41-60.

성명재(2011). 가계동향조사와 국제통계연보 비교를 통한 사업소득세 탈루규모의 추정 연구. *세무학연구*, 28(2), 227-255.

소은영·박성환(2015). 소상공인의 기업가정신이 재무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한국경영교육학회*, 30(1), 245-264.

신동진·박추환(2007).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효율성 분석. *생산성논집(구 생산성연구)*, 21(4),

289-317.

- 오광용·박대우(2019). 블록체인을 활용한 소상공인 핀테크 금융 지원시스템 설계. *한국통신학회논문지*, 44(6), 1173-1180.
- 윤병우·권태구(2020). 자영업가구의 채무불이행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 *한국자료분석학회지*, 22(1), 279-292.
- 윤상용(2019). 지역상권 특성이 자영업자 폐업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시 25개 자치구를 중심으로. *기업과학* 42(3), 21-39.
- 윤상용·강만수(2017). 증금리 대출시장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역할방안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30(4), 1257-1274.
- 윤상용·김지수(2014). 소상공인 신용보증의 경기변동 관련성 검증. *경영연구*, 29(4), 209-229.
- 이근우·강만수·박상규(2015). 소기업·소상공인의 생존분석에 관한 연구: 강원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한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연구*, 37(1), 57-75.
- 이주희·동학림(2018). 소상공인의 자금공급 확대를 위한 빅데이터 활용 방안연구. *벤처창업연구*, 13(3), 125-140.
- 이태정(2014). 경기변동과정에서의 자영업자의 역할과 자영업자 지원정책에 대한 시사점: 강원도의 사례. *지역연구*, 30(1), 81-108.
- 정무섭·표민찬(2018). 소상공인의 핀테크 활용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영컨설팅연구*, 18(2), 257-265.
- 조준희·김찬중(2010). 소상공인 창업의 재무성과 영향요인 연구. *산업경제연구*, 23(1), 127-144.
- 주동현·손종철(2014). 우리나라의 지역별 금융차입제약 정도와 자영업 구조에 관한 분석. *중소기업연구*, 36(1), 69-86.
- 최문경·이명진(2005). 자영업, 선택인가? 한국과 미국. *한국사회학*, 39(1), 21-51.

[부록]

<표 16> 대표자의 출생년도

연도	빈도(건)	상대빈도(%)
1930-1940년	4	0.07
1941-1950년	52	0.94
1951-1960년	526	9.53
1961-1970년	1,542	27.93
1971-1980년	1,992	36.08
1981-1990년	1,329	24.07
1991-2000년	75	1.36
N/A	1	0.02
Total	5,521	10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16>은 회사 대표자의 출생년도를 나타내는 자료이다. 대표자의 출생년도는 1971-1980년 사이 36.08%로 가장 많았다. 1961-1970년이 27.93%로 그 다음으로 많았으며, 1981-1990년생이 24.07%이다. 생년월일이 결측 되어있는 관측치는 1개 존재하였다.

<표 17> 대표자의 만 나이

만 나이	빈도(건)	상대빈도(%)
만 20세 미만	1	0.02
만 20-30세	121	2.19
만 31-40세	1,684	30.50
만 41-50세	2,239	40.55
만 51-60세	1,191	21.57
만 61-70세	260	4.71
만 71-80세	23	0.42
만 81세 이상	1	0.02
N/A	1	0.02
Total	5,521	10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17>은 최종증액년도를 기준으로, 회사 대표자의 생년월일을 12월 31일로 가정했을 때의 만 나이를 계산한 자료이다. 만 31세 미만에는 대표자가 3% 미만이며, 31세-40세부터는 30.5%로 증가하며 41-50세가 40.5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51-60세는 21.57%를 차지하며, 61세부터는 대표자인 경우가 급감하여 61-70세부터는 4.71%, 71세 이상 구간부터는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난다. 생년월일이 결측되어있는 관측치가 1개 존재한다.

<표 18> 대표자의 성별

성별	빈도(건)	상대빈도(%)
남	4,575	82.9
여	946	17.1
Total	5,521	1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18>은 대표자의 성별을 나타낸 자료로, 대표자 중 82.9%가 남성, 17.1%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19> 대표자의 동종업계 종사년수

기간	빈도(건)	상대빈도(%)
0-4년	2,931	53.09
5-9년	1,349	24.43
10-14년	579	10.49
15-19년	369	6.68
20-24년	171	3.10
25-29년	84	1.52
30-34년	23	0.42
35-39년	11	0.20
40-44년	3	0.05
45-49년	1	0.02
Total	5,521	10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19>는 대표자의 동종업계 종사년수를 나타낸 자료이다. 반 이상인 53.09%가 동종업계 종사년수가 0-4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5-9년이 24.43%를 차지했다. 10-14년은 10.49%로, 그 이상부터는 동종업계종사년수가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20> 표본 회사가 설립된 연도

회사 설립연도	빈도(건)	상대빈도(%)
1965-69년	1	0.02
1970-74년	2	0.04
1975-79년	3	0.05
1980-84년	9	0.16
1985-89년	34	0.62
1990-94년	93	1.68
1995-99년	215	3.89
2000-04년	463	8.39
2005-09년	557	10.09
2010-14년	1,046	18.95
2015-19년	3,098	56.11
Total	5,521	10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20>은 표본 회사의 설립연도를 나타낸 자료이다. 표본의 반 이상인 56.11%가 2015-19년 사이에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2010-14년에 설립된 회사가

18.95%를 차지했다. 2005-09년 설립된 회사는 10.09%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표본 회사의 운영 기간

기간	빈도(건)	상대빈도(%)
음수0	291	5.3
1년 미만	907	16.4
1년 이상-5년 미만	2,480	44.9
5년 이상-10년 미만	1,142	20.7
10년 이상-20년 미만	564	10.2
20년 이상	137	2.5
Total	5,521	1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21>는 설립일자부터 회사가 마지막으로 보증을 받은 최종신규증액일자까지를 회사 운영기간으로 간주하고 회사별 운영기간을 나타낸 자료이다. 예비창업자 보증제도를 통해 개인기업 개업 또는 법인기업 설립 전에 미리 심사를 하여 보증을 승인받는 경우로 인해 일부 표본이 음수에서 0까지의 경우가 존재한다.

1년 이상-5년 미만 운영된 회사는 44.9%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으며, 그 다음으로는 5년 이상-10년 미만으로 20.7%로 나타났다. 1년 미만은 16.4%로 나타났으며, 10년 이상-20년 미만도 10.2%로 나타났다.

<표 22> 표본 회사의 사업장 지역 별 운영 기간

지역		음수-0	1년 미만	1년 이상-5년 미만	5년 이상-10년 미만	10년 이상-20년 미만	20년 이상	Total
강원	빈도	3	13	37	14	11	4	82
	%	3.7	15.9	45.1	17.1	13.4	4.9	100.0
경기	빈도	76	294	855	370	163	41	1,799
	%	4.2	16.3	47.5	20.6	9.1	2.3	100.0
경남	빈도	18	41	121	60	28	8	276
	%	6.5	14.9	43.8	21.7	10.1	2.9	100.0
경북	빈도	6	47	86	48	31	9	227
	%	2.6	20.7	37.9	21.1	13.7	4.0	100.0
광주	빈도	10	18	44	30	11	6	119
	%	8.4	15.1	37.0	25.2	9.2	5.0	100.0
대구	빈도	13	45	123	64	29	8	282
	%	4.6	16.0	43.6	22.7	10.3	2.8	100.0
대전	빈도	4	12	45	26	15	1	103
	%	3.9	11.7	43.7	25.2	14.6	1.0	100.0
부산	빈도	10	46	114	79	34	13	296
	%	3.4	15.5	38.5	26.7	11.5	4.4	100.0
서울	빈도	107	229	663	269	157	34	1,459
	%	7.3	15.7	45.4	18.4	10.8	2.3	100.0
세종	빈도	3	14	8	2	1	0	28
	%	10.7	50.0	28.6	7.1	3.6	0.0	100.0
울산	빈도	0	1	17	8	2	1	29
	%	0.0	3.4	58.6	27.6	6.9	3.4	100.0
인천	빈도	12	73	165	69	36	7	362
	%	3.3	20.2	45.6	19.1	9.9	1.9	100.0
전남	빈도	6	7	39	17	10	1	80
	%	7.5	8.8	48.8	21.3	12.5	1.3	100.0
전북	빈도	8	15	51	34	15	2	125
	%	6.4	12.0	40.8	27.2	12.0	1.6	100.0
제주	빈도	4	8	18	5	1	0	36
	%	11.1	22.2	50.0	13.9	2.8	0.0	100.0
충남	빈도	3	26	53	29	12	1	124
	%	2.4	21.0	42.7	23.4	9.7	0.8	100.0
충북	빈도	8	18	41	18	8	1	94
	%	8.5	19.1	43.6	19.1	8.5	1.1	100.0
Total	빈도	291	907	2,480	1,142	564	137	5,521
	%	5.3	16.4	44.9	20.7	10.2	2.5	1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22>은 표본 회사의 사업장 지역별 총 운영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운영기간이 음수~0에 해당하는 회사는 상대적으로 세종, 제주에서 10%를 넘어가며 다른 지역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미만인 회사는 세종이 약 50%를 나타내며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많았고, 경북, 인천, 제주, 충남 에서는 약 20% 이상으로 나타났다.

1년 이상 5년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경북, 광주, 부산, 세종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약 4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경북, 광주, 부산의 경우 약 37-38%정도로 나타났고, 세종에서는 약 30%로 나타났다. 5년 이상 10년 미만의 경우 광주, 부산, 울산, 전북 지역에서 약 25% 이상으로 나타났고, 경기, 경남, 경북, 대구, 대전, 전남, 충남의 경우 약 20% 이상의 값을 보였다. 이외에 강원, 서울, 인천, 제주, 충북의 경우 약 20% 미만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경우 강원, 경남, 경북, 대구, 대전, 부산, 서울 전남, 전북, 충남에서 약 10% 이상으로 나타났다. 20년 이상의 운영기간을 보이는 경우는 강원, 광주에서 약 5%로 가장 크게 나타냈다.

<표 23> 표본 회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대분류) 기준 상위 10개 관측 업종

업종 분류	빈도(건)	상대 빈도(%)
G 도매 및 소매업(45-47)	1,891	34.3
C 제조업(10-34)	1,311	23.8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86-87)	887	16.1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73)	364	6.6
H 운수 및 창고업(49-52)	203	3.7
F 건설업(41-42)	194	3.5
I 숙박 및 음식점업(55-56)	165	3.0
J 정보통신업(58-63)	158	2.9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94-96)	103	1.9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102	1.9
Total	5,521	1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23>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대분류 기준으로 관측된 회사의 업종을 상위 10개로 나누어 나타낸 자료이다. 도매 및 소매업이 34.3%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제조업이 2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그 다음으로, 16.1%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4> 표본 회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세세) 기준 상위 10개 관측 업종

업종 분류	빈도(건)	상대빈도 (%)
치과 의원	314	5.7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297	5.4
일반 의원	290	5.3
전자상거래 소매업	258	4.7
한의원	186	3.4
화물 운송 중개,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76	1.4
한식 일반음식점업	68	1.2
주형 및 금형 제조업	65	1.2
일반 화물자동차 운송업	63	1.1
세무사업	62	1.1
Total	5,521	1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24>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의 세세분류 기준으로 관측된 회사의 업종을 상위 10개로 나누어 나타낸 자료이다. 치과 의원이 가장 많은 5.7%를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이 5.4%, 일반의원이 5.3%, 전자상거래소매업이 4.7%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5> 표본 회사의 주 채권기관

주 채권기관	빈도(건)	상대빈도 (%)
서울보증보험	22	0.4
신한은행금융개발부	15	0.3
기업서교통(지)	14	0.3
중소기업진흥공단서울	14	0.3
중소기업진흥공단	13	0.2
기업근지암	12	0.2
기업독립문(지)	12	0.2
기업마장동(지)	11	0.2
기업잠실엘스	11	0.2
현대캐피탈(주)	9	0.2
현대캐피탈(주)신용분석팀	9	0.2
기업대구중앙(지)	8	0.1
농협본부총괄	8	0.1
기업서소문(지)	8	0.1
기업무교(지)	6	0.1
전문건설공제조합	6	0.1
기업둔촌동	6	0.1
KB캐피탈경기<본>	6	0.1
기업방배동(지)	6	0.1
기업반월서(지)	6	0.1
기업비산동(지)	6	0.1
기업시흥(지)	6	0.1
N/A	3,608	65.3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25>은 관측된 회사의 주 채권기관을 나타낸 자료이다. 관측치 중 3,608개의 주 채권기관 정보가 결측으로 나타났다으며, 해당 표에는 최소 6개 이상의 기업에서 주 채권기관으로 기록되어 있는 기관을 나타냈다. 금융기관이 동일하여도 지점이 다른 경우 각각 다른 기관으로 분류되어 있다. 주 채권 기관으로 가장 많이 나타난 기관은 서울보증보험으로, 총 22개의 회사에서 주 채권기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신한은행금융개발부로 15개, 기업은행 서교동지점이 1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표본 회사의 사업장 소유 형태

구분	빈도(건)	상대빈도(%)
미상_해당없음	2	0.04
임차	27	0.49
임차, 권리침해사실무	38	0.69
임차, 권리침해사실유	5	0.09
임차, 해당없음	4,768	86.36
자가, 권리침해사실무	665	12.04
자가, 권리침해사실유	16	0.29
Total	5,521	10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26> 의 경우 관측된 회사의 사업장 소유형태를 나타낸 자료이다. 86.36%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회사가 임차이며, 권리침해는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자가 및 권리침해 사실이 없는 경우가 12.04%로 나타났다.

<표 27> 대표자의 거주주택 소유 형태

구분	빈도(건)	상대빈도(%)
미상, 해당없음	4	0.1
임차	47	0.9
임차, 권리침해사실무	45	0.8
임차, 해당없음	1,895	34.3
자가, 권리침해사실무	3,496	63.3
자가, 권리침해사실유	34	0.6
Total	5,521	1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27> 는 대표자의 거주주택 소유형태를 나타낸 자료이다. 자가 및 권리침해사실이 없는 경우가 63.3%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그 다음으로는 34.3%로 임차 및 권리침해사실이 해당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표본 회사 중 혁신형 중소기업 해당 분류

구분	빈도(건)	상대빈도(%)
(구)수출중소기업	55	1.0
(신)수출중소기업	79	1.4
경영혁신형중소기업	12	0.2
기술혁신형기업	49	0.9
유망서비스업영위기업	250	4.5
지역별전략적육성산업영위기업	131	2.4
차세대성장산업(6T)영위기업	80	1.5
혁신형창업기업	150	2.7
N/A	4,715	85.4
Total	5,521	1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28>은 표본 회사 중 혁신형 중소기업 분류에 해당하는 기업을 그 구분 별로 나타낸 것이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특성에 따라 보증심사 또는 보증료 납부 시에 우대된다. 관측된 회사 중 14.6%의 회사가 혁신형 중소기업에 해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85.4%의 회사의 경우 결측으로 나타났다. 혁신형중소기업 분류 중에서는 유망서비스업 영위기업이 4.5%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표본 회사 중 미래성장기업군 해당 분류

구분	빈도(건)	상대빈도(%)
1군	25	0.4
2군	556	10.1
3군	2,335	42.3
4군	515	9.3
N/A	2,090	37.9
Total	5,521	1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29>는 표본 회사 중 미래성장기업군에 해당하는 기업을 그 구분 별로 나타낸 것이다. 미래성장기업군은 1-4군으로 분류되며,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이 우수한 경우가 1군으로 표시된다. 미래성장기업군에 해당하는 기업은 전체 관측치의 62.1%에 해당하며, 나머지 37.9%는 결측으로 나타났다. 미래성장기업군 분류 중 가장 많은 3군에는 기업의 총 42.3%가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2군이 10.1%에 해당했다. 이외에 1군의 경우에는 0.4%의 기업이, 4군의 경우에는 9.3% 기업이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0> 표본 회사의 기업특성 보증상품 누적 이용 갯수

상품 이용 개수	빈도(건)	상대빈도(%)
0	1,404	25.4
1	1,514	27.4
2	1,356	24.6
3	881	16.0
4	292	5.3
5	74	1.3
Total	5,521	1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30>은 표본 회사에서 이용한 기업특성 보증상품의 누적이용갯수를 나타낸다. 전체 회사 중 27.4%에서 1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0개를 이용한 회사가 25.4%, 2개가 24.6%로 나타났다.

<표 31> 표본 회사의 자금특성 보증상품 누적 이용 갯수

상품 이용 개수	빈도(건)	상대빈도(%)
1	1,234	22.4
2	2,500	45.3
3	1,438	26.0
4	301	5.4
5	48	0.9
Total	5,521	1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31>은 표본 회사에서 이용한 자금특성 보증상품의 누적이용갯수를 나타낸다. 전체 회사 중 45.3%가 2개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3개를 이용한 회사가 26.0%, 1개가 22.4%로 나타났다.

<표 32> 보증상품의 누적 이용 개수 별 자금특성 보증상품과 기업특성 보증상품의 평균 이용 개수

보증상품 총 이용 개수	자금특성 보증상품 이용 개수	기업특성 보증상품 이용 개수
1	1.0	0.0
2	1.5	0.5
3	2.2	0.8
4	2.3	1.7
5	2.5	2.5
6	2.9	3.1
7	3.4	3.6
8	3.9	4.1
9	4.6	4.4
10	5.0	5.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32>는 관측된 회사에서 이용한 보증상품의 누적이용 개수 별로 자금특성 보증상품과 기업특성 보증상품의 평균 이용 개수를 나타낸 것이다. 총 보증상품 이용개수 4개 미

만에서는 자금특성 보증상품의 이용이 기업특성 보증상품의 이용보다 평균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5-8개 이용에서는 자금특성 보증상품과 기업특성 보증상품의 이용 개수가 같거나, 기업특성보증상품의 이용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개 이용 시에는 자금특성 보증상품의 이용 개수가 평균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표본 회사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된 보증상품 상위 10개

상품명	빈도(건)	상대빈도(%)	상품 특성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출연(기업은행, 19.1월)	3,567	64.6	자금
유망창업기업	2,790	50.5	기업
유망청년창업기업	1,276	23.1	기업
법인기업 연대보증 면제 보증 (18년 4월)	1,262	22.9	자금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914	16.6	기업
상환구조보증-상환약정방식	866	15.7	자금
2-3.신생기업보증(기술,지식)	841	15.2	자금
소액보증집중심사제 대상보증	825	14.9	자금
유망서비스업(보건의료형)	599	10.8	기업
1-1.에비창업보증(전문자격)	534	9.7	자금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33>은 관측된 회사에서 이용한 보증상품 중 가장 많이 사용된 상품 상위 10개를 나타낸 것이다. 동일 상품인데 이용한 은행이 다르거나, 업종, 지역에 따라 수혜 내역이 다른 상품은 별개의 상품으로 분류 되었다. 가장 많이 이용된 보증상품은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출연(기업은행, 19.1월)으로, 관측된 회사 중 반 이상에 해당하는 64.6%의 기업이 해당 상품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유망창업기업으로, 전체 기업 중 50.5%가 이 상품을 이용했다.

<표 34> 표본 회사의 최초 보증 취급 연도

최초 보증 취급 연도	빈도(건)	상대빈도(%)
1989-1993	7	0.1
1994-1998	42	0.8
1999-2003	173	3.1
2004-2008	211	3.8
2009-2013	705	12.8
2014-2018	564	10.2
2019	3,819	69.2
Total	5,521	1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34>는 관측된 회사에서 최초로 보증을 취급받은 연도를 나타낸다. 최초보증취급연도의 경우 상담, 접수, 신용조사, 신용심사의 과정을 거친 후 보증서가 발급된 연도를 의미한다. 전체 관측치 중 69.2%에 해당하는 회사가 2019년에 최초로 보증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2009-13년에 12.8%의 기업이 보증서를 발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2014-2018년에 10.2%에 해당하는 회사가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표 35> 표본 회사가 마지막으로 보증 받은 연도

연도	빈도(건)	상대빈도(%)
2009	729	13.20
2010	106	1.92
2011	8	0.14
2012	6	0.11
2014	2	0.04
2019	4,670	84.59
Total	5,521	10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35>는 표본 회사의 최종신규증액연도, 즉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마지막으로 보증 받은 연도를 나타낸다. 해당 연도는 2009-2014년, 2019년이 관측되며, 가장 많이 관측된 해는 2019년으로 84.59%의 회사에 해당된다. 그 다음으로는 13.20%의 회사가 2009년에 마지막으로 보증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36> 표본 회사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보증받은 금액

보증 금액	빈도(건)	상대빈도(%)
0원-1억 원 미만	2,233	40.45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2,879	52.15
2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362	6.56
3억 원 이상-4억 원 미만	37	0.67
4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4	0.07
5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1	0.02
6억 원 이상-7억 원 미만	2	0.04
7억 원 이상-8억 원 미만	1	0.02
8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1	0.02
13억 원 이상	1	0.02
Total	5,521	10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36>의 경우 관측된 회사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보증 받은 금액을 나타낸다. 마지막에 보증받은 금액이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인 경우가 52.15%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0원-1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가 40.45%였

다. 그 다음으로는 2억 원 이상-3억 원 미만이 6.56%이었으며, 3억 원 이상 부더의 항목들은 각각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연도별 표본 회사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보증받은 금액

신규증액금액	연도			
	2019년		2009-12년	
	빈도(건)	상대 빈도(%)	빈도(건)	상대 빈도(%)
0원-1억 원 미만	1,755	31.79	478	8.66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	2,646	47.93	233	4.22
2억 원 이상-3억 원 미만	263	4.76	99	1.79
3억 원 이상-4억 원 미만	6	0.11	31	0.56
4억 원 이상-5억 원 미만	0	0.00	4	0.07
5억 원 이상-6억 원 미만	0	0.00	1	0.02
6억 원 이상-7억 원 미만	0	0.00	2	0.04
7억 원 이상-8억 원 미만	0	0.00	1	0.02
8억 원 이상-9억 원 미만	0	0.00	1	0.02
13억 원 이상	0	0.00	1	0.02
Total	4,670	84.59	851	15.41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37>는 관측된 회사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보증 받은 금액을 보증 받은 연도(2019년, 2009-12년)별로 나타낸 것이다. 전체 회사 중 84.59%에 해당하는 회사가 2019년에 가장 마지막으로 보증을 받았으며, 이외에 15.41%에 해당하는 회사에서는 2009-12년에 가장 마지막으로 보증받았다. 2019년에는 4억 원 이상으로 보증 받은 회사는 없으며, 이에 반해 2009-12년에는 해당 관측 값이 많지는 않으나 4억 원 이상부터 13억 원 이상까지 표본 회사에서 보증 받은 이력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회사 중에서 47.93%에 해당하는 회사가 2019년에 1억 원 이상-2억 원 미만을 가장 마지막으로 보증 받았다. 그 다음으로는 2019년에 0원-1억 원 미만을 마지막으로 보증 받은 회사가 31.79%였다.

<표 38> 표본 회사의 종합신용등급

종합신용등급	빈도(건)	상대빈도(%)
F1	2	0.04
F2	4	0.07
KR2	5	0.09

KR3	29	0.53
KR4	79	1.43
KR5	169	3.06
KR6	351	6.36
KR7	623	11.28
KR8	716	12.97
KR9	814	14.74
KR10	816	14.78
KR11	392	7.10
KR12	180	3.26
KR13	71	1.29
KR14	54	0.98
KR15	4	0.07
R1	3	0.05
R2	1	0.02
S1	3	0.05
S2	3	0.05
S3+	8	0.14
S3-	3	0.05
S4+	2	0.04
SB5	2	0.04
N/A	1,187	21.50
Total	5,521	10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38>은 관측된 회사의 종합신용등급을 나타낸 자료이다. 종합신용등급은 재무등급점수에 가중치를 높게 두고 재무등급점수, 계량비재무점수, 순수비재무점수를 합산하여 산출한 자료이다. 전체 관측치 중 78.5%의 경우 종합신용등급이 나타나며, 나머지 21.5%의 경우 결측으로 나타난다. 현재 기준으로 KR1-KR15까지 산출하고 있으며, 자료에서는 KR7-KR10까지가 각각 약 11-15% 사이를 차지하며 전체 회사 중에서 해당하는 등급 중 가장 많은 등급 군을 차지한다. S1, S2, S3+, S3-, S4+의 경우는 현재 시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표 39> 표본 회사의 지식자산평가GR등급 해당 분류

구분	빈도(건)	상대빈도 (%)
GR-1	20	0.4
GR-2	106	1.9
GR-3	412	7.5
GR-4	783	14.2
GR-5	1,039	18.8
GR-6	620	11.2
GR-7	142	2.6
GR-8	84	1.5

GR-9	26	0.5
GR-10	8	0.1
N/A	2,281	41.3
Total	5,521	1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39>은 관측된 회사의 지식자산평가GR등급을 나타낸 자료이다. 지식자산평가GR등급은 회사가 보유한 지식자산을 평가한 등급이다. 전체 관측치에서 58.7%의 회사가 지식자산평가GR등급을 부여 받았으며, 나머지 41.3%는 결측된 것으로 나타난다. 가장 많이 부여받은 등급으로는 GR-5가 18.8%로 나타나며, 그 다음으로는 GR-4가 14.2%, GR-6이 11.2%로 나타났다.

<표 40> 표본 회사의 기술평가TR등급 해당 분류

구분	빈도(건)	상대빈도(%)
TR-1	1	0.02
TR-2	6	0.11
TR-3	18	0.33
TR-4	31	0.56
TR-5	19	0.34
TR-6	15	0.27
TR-7	7	0.13
TR-8	5	0.09
N/A	5,419	98.15
Total	5,521	10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40>은 관측된 회사의 기술평가TR등급을 나타낸 자료이다. 기술평가TR등급은 회사가 보유한 기술자산을 평가한 등급이다. 대부분의 회사가 결측으로 나타나 기술평가TR등급을 부여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 1.85% 즉 총 102개의 회사만이 등급을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41> 표본 회사의 기업가치FV등급 해당 분류

구분	빈도(건)	상대빈도(%)
FV-1	3	0.05
FV-2	26	0.47
FV-3	14	0.25
FV-4	14	0.25
FV-5	19	0.34
FV-6	19	0.34
FV-7	11	0.20
FV-8	13	0.24
FV-9	8	0.14

FV-10	1	0.02
N/A	5,393	97.68
Total	5,521	10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41>은 관측된 회사의 기업가치FV등급을 나타낸 자료이다. 기업가치FV등급은 일정 규모 이상의 업체에 대해 과거 재무제표를 이용하여 현금흐름할인모형(DCF)을 적용하여 미래의 기업가치를 금액으로 산출한다. 대부분의 회사인 97.68개의 회사에서 결측으로 나타나며, 나머지 2.32%, 즉 128개의 회사만이 기업가치FV등급을 부여받았다.

<표 42> 표본 회사의 보증심사등급

보증심사등급	빈도(건)	상대빈도(%)
F1	2	0.04
F2	4	0.07
K1	1	0.02
K2	7	0.13
K3	37	0.67
K4	111	2.01
K5	210	3.80
K6	388	7.03
K7	602	10.90
K8	709	12.84
K9	777	14.07
K10	679	12.30
K11	368	6.67
K12	160	2.90
K13	74	1.34
K14	41	0.74
K15	4	0.07
R1	4	0.07
R2	1	0.02
S1	3	0.05
S2	3	0.05
S3+	9	0.16
S3-	4	0.07
S4+	2	0.04
SB1	22	0.40
SB2	13	0.24
SB3	11	0.20
SB4	15	0.27
SB5	38	0.69
SB6	21	0.38
SB7	15	0.27
SB8	8	0.14

SB9	1	0.02
N/A	1,177	21.32
Total	5,521	100.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42>는 관측된 회사의 보증심사등급을 나타낸 자료이다. 보증심사등급은 종합신용등급에 지식자산평가등급 또는 기술평가등급을 결합하여 최종적으로 신보가 산출하는 등급이다. 관측치 중 78.68%의 회사에서 보증심사등급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 21.32%의 경우 결측으로 나타났다. K7-10까지의 등급이 각각 약 11-14%를 나타냈으며, 가장 많이 나타난 등급은 K9로 14.07%였다.

아래 <표 43>은 관측된 회사의 자산총계, 자본총계, 부채총계의 관측 상태를 나타낸다. 자산총계의 경우 전체 2014-18년까지 총 27605개의 관측치 중 20063개가 결측되어 있으며, 7542개가 관측되어 있다. 0으로 나오는 관측치가 2017년에 2개 있으며, 나머지는 모두 양수로 나타났다. 자본총계도 총 2014-18년까지 총 27605개의 관측치 중 20063개가 결측되어 있다. 관측치 중 음수인 것은 총 331개, 양수인 것은 7161개, 0인 것은 50개로 나타났다. 부채상태도 총 2014-18년까지 총 27,605개의 관측치 중 20,063개가 결측되어 있으며, 관측치 중 양수인 것은 총 7,220개, 0인 것은 322개로 나타났다.

아래 <표 42>는 표본 회사의 연도별 재무 비율의 평균 수준을 나타낸다. 관측치 수는 연도별로 큰 폭의 차이가 나는 편이다. 모든 관측 변수에 있어서 2014년도에 관측치가 가장 적고, 2017년도에 관측치가 다른 해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가장 크다.

고정장기적합비율의 경우 '비유동자산(비유동부채+자본총계)'로 계산되었으며, 순이익증가율은 '((당기순이익-전년도 당기순이익)/전년도 당기순이익)*100'으로 계산되었다. 매출액증가율은 '((매출액- 전년도 매출액)/전년도 매출액)*100'으로 계산되었으며, 총자산증가율은 '((자산총계-전년도 자산총계)/전년도 자산총계)*100'으로 계산되었다. 총자산회전비율은 '매출액/자산총계'로 계산되었다.

<표 43> 표본 회사의 연도별 재무 비율 지표 관측 상태

연도	총자산 회전 비율 관측치 수	총자산 회전 비율 평균 (%)	총자산 회전 기간 비율 관측치 수	운전 자금 회전 기간 비율 평균 (%)	재고 자산 회전 기간 비율 관측치 수	재고 자산 회전 기간 비율 평균 (%)	총자산 증가 비율 관측치 수	총자산 증가 비율 평균 (%)	순이익 증가 비율 관측치 수	순이익 증가 비율 평균 (%)	매출액 증가 비율 관측치 수	매출액 증가 비율 평균 (%)	매출 금액 경상 이익 비율 관측치 수	매출 금액 경상 이익 비율 평균 (%)	총자산 경상 이익 비율 관측치 수	총자산 경상 이익 비율 평균 (%)	고정 장기 적합 비율 관측치 수	고정 장기 적합 비율 평균 (%)	총 채입금 의존도 비율 관측치 수	총 채입금 의존도 비율 평균(%)
2014	287	2.8	226	1.2	226	1.0	226	13.9	226	60.5	226	25.8	226	3.3	226	11.2	285	3,160.0	226	2,263
2015	1008	3.9	863	0.8	863	0.7	874	35.9	874	17.0	874	164.1	863	9.0	863	27.0	994	2,115.4	863	1,084
2016	2025	4.5	1579	0.6	1579	0.8	1651	36.0	1650	62.3	1650	73.3	1579	3.6	1579	22.5	2002	3,149.4	1,579	1,691
2017	2812	4.5	2078	0.5	2078	0.9	2527	74.7	2524	42.3	2526	196.6	2078	1.1	2078	28.6	2,790	2,441.0	2,078	1,828
2018	1408	3.8	1050	0.4	1050	1.4	1338	166.9	1338	51.8	1338	620.5	1050	2.4	1050	7.2	1,405	1,425.0	1,050	518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

<표 44> 표본 회사의 연도별 부채총계, 자산총계, 지산총계, 자본총계 관측 상태

연도	부채총계 관측 상태				자산총계 관측 상태				자본총계 관측 상태				Total													
	0	상대 빈도 (%)	결측	양수	0	상대 빈도 (%)	결측	양수	0	상대 빈도 (%)	결측	양수	0	상대 빈도 (%)	결측	양수	0	상대 빈도 (%)	결측	양수						
2014	11	3.42	5,234	276	3.82	5,521	20	20	0	0	5,234	26.09	287	3.81	5,521	20	2	4	5,234	26.09	271	3.78	14	4.23	5,521	20
2015	40	12.42	4,512	969	13.42	5,521	20	20	0	0	4,512	22.49	1,009	13.38	5,521	20	8	16	4,512	22.49	954	13.32	47	14.2	5,521	20
2016	98	30.43	3,496	1,927	26.69	5,521	20	20	0	0	3,496	17.43	2,025	26.86	5,521	20	14	28	3,496	17.43	1,897	26.49	114	34.44	5,521	20
2017	126	39.13	2,708	2,687	37.22	5,521	20	20	2	100	2,708	13.5	2,811	37.28	5,521	20	25	50	2,708	13.5	2,667	37.24	121	36.56	5,521	20
2018	47	14.6	4,113	1,361	18.85	5,521	20	20	0	0	4,113	20.5	1,408	18.67	5,521	20	1	2	4,113	20.5	1,372	19.16	35	10.57	5,521	20
Total	322	100	20,063	100	7,220	100	27,605	100	2	100	20,063	100	7,540	100	27,605	100	50	100	20,063	100	7,161	100	331	100	27,605	100

원자료 출처: 신용보증기금 내부자료